

2009. 3. 10.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3월 11일(수)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KDI, "경제위기 극복의 길 사회적 기업에서 찾아야"

KDI-컬럼비아 경영대학 공동개최 「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

- 일 시: 2009년 3월 11일(수)~12일(목) 09:00~18:00
- 장 소: 3월 11일(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  
3월 12일(목) KDI 대회의실
- 주 최: KDI, 컬럼비아 경영대학
- 후 원: 연세대학교, KAIST

□ **사회적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힘을 이용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환경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
- 비즈니스적 관점의 경영을 통해 조직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효과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음.
- 자선적 복지는 조성된 자금이 점차 소진되어가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자본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이라는 뜻을 공통적으로 내포**

-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책임투자자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함

□ **KDI는 컬럼비아 경영대학과 공동으로 연세대학교와 KAIST의 후원하에 「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를 개최,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방안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

- 3월 11일(수)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첫 날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대한 논의를,
- 3월 12일(목) KDI에서 열린 둘째 날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 특히 시장을 잘 활용하여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와 자금 대출 및 투자 시스템 등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환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

※ 컬럼비아 경영대학은 권위 있는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센터를 시작하였으며, KAIST는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번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기업의 사회 통합 능력과 혁신의 힘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수집할 수 있기를 기대**

- 학계, NGO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회적 기업의 잠재력을 더욱 잘 이해하고, 모두를 품고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임.
- KDI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임.

※ KDI는 2007년 소외계층을 끌어안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자본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이를 실현해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2007년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심포지움」,  
2008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으며,  
- 2008년 수행했던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제고 방안』(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외 著)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배포  
※ **공동체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소외계층을 줄이고 공동체성을 제고**  
- 시장의 힘을 활용해 정부, NGO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빌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자본주의와 유사한 개념  
-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자본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이미 포함된 개념

※ 문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2

## [프로그램]

### 2009. 3. 11(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

09:00 ~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 ~ 09:35 개회: 박헌준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09:35 ~ 09:45 환영사: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

09:45 ~ 10:05 기조연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 경영대학 학장)

10:15 ~ 12:15 **제1세션: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사회: 이승규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소장)

발표: 레이몬드 호튼 (컬럼비아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패널토론: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윤영섭 (고려대학교 교수)

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

백윤석 (KAIST 교수)

12:30 ~ 13:45 오찬

오찬연설: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

14:00 ~ 16:00 **제2세션: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사회: 임종원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빌 드레이튼 (아쇼카 대표) [영상 메시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패널토론: 고건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규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소장)

나영돈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박헌준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16:15 ~ 17:50 **제3세션: 경영대학의 역할**

사회: 박헌준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발표: 산드라 나발리 (컬럼비아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센터 실장)

패널토론: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

유창조 (한국경영대학원장협의회 회장)

전용욱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

레이몬드 호튼 (컬럼비아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17:50 ~ 18:00 폐회사: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2009. 3. 12(목) KDI 대회의실

- 09:00 ~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 09:40 ~ 09:45    개회: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09:45 ~ 09:55    환영사: 한정택 (KDI 원장)
- 10:00 ~ 12:05    **제4세션: 사회적 기업 - 세계적 시각과 한국적 시각**  
사회: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발표: 안토니 버그 르바인 (록펠러재단 상임이사)  
         엘리자베스 데이비슨 (미주개발은행 선임투자심사역)  
패널토론: 폴리 알렉산더 (아큐먼펀드 사업개발실장)  
         노한균 (국민대학교 교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 12:15 ~ 13:35    오찬
- 13:45 ~ 15:45    **제5세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사회: 오규택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 브루스 어셔 (컬럼비아 경영대학 교수)  
         폴리 알렉산더 (아큐먼펀드 사업개발실장)  
패널토론: 엘리자베스 데이비슨 (미주개발은행 선임투자심사역)  
         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 16:00 ~ 17:40    **제6세션: 종합토론**  
사회: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레이몬드 호튼 (컬럼비아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노기성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원장)  
         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  
         오규택 (중앙대학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 17:45 ~ 17:55    폐회사: 안병훈 (KAIST 서울 부총장, 경영대학 학장)

## 제1세션

#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발표자료〉 사회적 기업의 의미, 범위, 그리고 잠재력

레이몬드 호튼(컬럼비아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 사회적 기업은 간단히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경영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은 경영학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며, 타 학문분야와 연계되는 특성으로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 시행되어 온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정의도 있으나, 이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편이 이해하기도 쉽고 논쟁의 위험도 적음.
  - 사회적 기업은 비즈니스를 의미하므로,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은 경영대학 내에 자리 잡아야 함.
  
- 사회적 기업을 단순히 새로운 사업으로 여겨 이를 어떻게 정상궤도에 올려놓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회책임경영, 윤리 경영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세금 납부 이상의 사회 공헌을 이루어내는 영리 기업들
  - 경영기법을 조직 운영에 적용하여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 후생을 증진시키는 비영리조직
  - 효율적이고 믿을만한 정부
    - 이는 금전적, 인적 자원과 더불어 법적 자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 탄소 배출권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환경을 정화하는 동시에 이윤도 획득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사업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

- 컬럼비아 경영대학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컬럼비아 대학의 특성에 맞춘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 한국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범위를 정의해야함.

□ 사회적 기업은 한 순간의 유행을 넘어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특히 사회적 기업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에만 제공되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됨.

##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

주철기(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

- 사회적 기업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
  - 세계화가 진전되며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사회적 문제들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가 커져
  - 유엔은 2000년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창설하고, 기업들이 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에 관한 보편적 가치들을 이행하도록 돕고 있음.
    - 세계적으로 6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콤팩트에 참여하고 있음
    - 세계 금융의 거버넌스 결여, 무책임한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류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줌.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의 우수 경영대학원들과 손을 잡고 책임 경영교육원칙(PRME)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각 경영대학에서 기업, NGO, 정부기관과 사회적 기업의 인재들이 사회책임인식으로 무장하도록 돕고 있음.
  
- 좁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영인들의 시각
  - 처음부터 환경보전이나 빈곤퇴치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함.
  - 처음부터 착하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좋은 경영성과를 내려고 함.
  - 때때로 신사업을 시도하며, 이 모든 일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함.
  
- 사회적 기업가들의 좋은 사업구상을 규모의 경제가 있도록 확대(scale)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은행, 대기업들의 지원이 필요
  - 미국, 유럽에서나 인도, 브라질 등지에서 성공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발전 등으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적기

- 사회적 동기에 민감한 양질의 젊은 인력, 사회책임부문의 일을 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음.
- 현 경제위기 탈피를 위한 전환의 필요성과 실업의 증대는 사회적 신벤처기업(start-up)들의 출현에 유리한 환경여건이 됨.

□ 젊은이들이 부족한 농업부문에 IT기술이나 환경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등의 농촌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한 사업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기 유리한 부문이라 할 수 있음.

- 한국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녹색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도 유망하며, 뒤쳐져있는 서비스산업도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킬 좋은 토양이 됨.
- 정부의 원조(ODA)와 국민의 대외적 사회공헌이 커지고 있는 국제 개발부문도 유망함.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에는 정부 기관, 대기업, 대학 등의 기술적 지원이 따라야 함.

-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업의 모델들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높은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녹색기술 특히 그 응용적 측면에서 유리한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한국경영대학원들은 잠재력 있는 미개발인력들을 사회적 기업의 전사로 육성하는 교육, 학습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기회

윤영섭(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이사장)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 혁신 및 결단을 가지고 설립·운영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에게는 고용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우선이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
  
-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08년 말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수가 218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사회적 목적으로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했으나 앞으로도 점차환경이나 보건·복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EU와 북미 국가들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과제로 세 가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사회적 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장기자금 조달,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중요
  - 둘째, 사회적 기업을 보다 나은 비즈니스로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사전 타당성 검사와 사후 훈련, 장기 운영자금 조달, 훈련과 교육강화를 위한 경영대학원 지원 등이 필요
  - 셋째,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확립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식 기반과 국내 및 글로벌 모범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사회적 기업의 예로서,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는 다운중후군 자녀를 가진 아홉 가정이 1994년 설립한 지적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이를 통해 배운점은
  - 첫째, 초기에 사회적 목적을 강하게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
  - 둘째, 자금조달은 결정적 시기마다 항상 중요하나 목적이 분명하면 따라옴.
  - 셋째, 조직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경영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설립자들과 사회적 목적을 공유하는 것임.

## 제2세션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 〈발표자료2〉 아름다운가게의 성공요인과 미래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아름다운 가게는 나눔과 순환, 그리고 되살림과 그물코 정신의 철학을 가지고 2002년 10월에 탄생
  - 현재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 매장 97개, 상근 간사 209명, 자원봉사자 5천여 명, 매출 124억을 기록
  
- 아름다운 가게의 성장과 발전에는 다양한 배경과 이유가 있음.
  - 외국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한 후, 한국적인 상황을 철저히 연구하고 한국인의 생각과 관습에 맞게 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함.
  - 단지 재활용물품을 파는 가게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와 전문화, 특성화를 시도함.
  -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장하려고 노력함.
  - '움직이는 가게'와 같이 늘 재미있는 실험을 벌임.
  - 필요한 자원은 기업, 단체, 사람들로 부터 무료로 얻는다는 원칙
  - '순환과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가게의 가치, '투명성과 윤리성'이라는 가치와 명분으로 대중에게 호소
  - 아름다운 가게는 공익성과 영리성을 다함께 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영리단체이면서 동시에 기업이기도 함.
  - 간사들과 자원봉사자, 임원들 간 강력한 리더십과 팀웍을 갖추고 있으며,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음.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지점을 여는 것을 목표로 아름다운 가게의 실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 공간이 너무 좁아 대형가구나 가전을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나눔의 실천 또한 액수를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어
- 물류시설이 충분치 않아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설립토록 추진

## 〈토론자료〉 프로테스탄트 교육과 사회 변화<sup>1)</sup>

고건(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심상달(KDI 선임연구위원)

- 최근 빈부 양극화, 글로벌 위기 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단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직시하지 않는 태도다. 의사가 부검을 하듯 역사를 파헤치고 들여다 봐야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막스 갈로)
  
- 개인의 자유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공업이 멸시 당하던 과거 중세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태동될 수 없었음.
  -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근대적인 사회제도, 법치주의가 먼저 확립되어야만 했고, 동시에 부와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만 했음.
  - 이러한 중세 구시대적 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찍부터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단순한 지적만으로는 근대화가 성공하기 어려웠음.
  - 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하고, 적극적으로 개혁 운동에 동참해야만 했음.
  
- 변화의 시작은 서구에서 시작돼,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당시 막 출현한 인쇄술 덕분에 가능했음.
  -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이 지배층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 바, 이는 대중의 힘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 종교 개혁가들은 빈부, 귀천, 남녀, 인종을 가리지 않고 교육하기 시작 - 가난한 자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생겨남.

1) 이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제고 방안’의 일부를 보완한 것임

-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교육했던 까닭은 그들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품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
- 많은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언론이 그 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이는 다시 평등 사회와 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세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치주의를 확립시킴.

□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투철한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된 이들은 기업경영에서도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감.

-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법적으로 분리하였으며, 기업의 회계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함.
- 돈 버는 것이 '개인의 안위'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과 재투자가 빠르게 일어남.
-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자 노동과 자본이 모여들었으며 모아진 재산은 사회에 환원시킴.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디어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를 수행해나가는 자본주의 문화가 탄생된 것

□ 이처럼 자본주의는 원래 '공동체 정신'에 의해 태동되었지만, 점차 자본주의가 기계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그 속에 지니고 있던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져 버림.

- 이 핵심적 정신 대신 극도의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자본주의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이닥친 위기일 것

□ 그러므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음.

- 막스 갈로도 "모든 개인·기업·나라가 극단의 개인주의를 자제하고 그 대신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음.

##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소? 책임있는 사회적 기업 플랫폼을 위하여

박헌준(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구환경위기 앞에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고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육성이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야하며, 둘째, 사회혁신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함.
- 인재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란 두 가지 이슈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사회적 기업의 발전 단계는 초기 창업 단계와 후기 메자닌(Mezzanin) 단계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는 인재와 역량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후기 단계에는 사회적 투자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벤처 메가 투자펀드의 조성이 필요
  -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첫째,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영리 비즈니스 모델, 둘째, 비영리와 영리 모델을 동시에 포함하는 하이브리드형 비즈니스 모델, 셋째 영리형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비영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가정신 발휘와 다수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하는 힘이 중요하며, 하이브리드형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창출과 이익 재투자가 중요함. 마지막으로 영리형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환경적 변혁을 추구함으로써 저소득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정적 자립을 도우고 재투자를 통하여 그 혜택의 범위와 규모를 넓혀가는 것이 목적

## 제3세션 경영대학의 역할

### 〈발표자료〉 컬럼비아 경영대학에서의 사회적 기업 발전

#### 산드라 나발리(컬럼비아 경영대학 사회적기업센터 실장)

- 컬럼비아 경영대학이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Social Enterprise Program: SEP)을 설립한 목적은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경영의 기여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음.
- 1983년 Public and Nonprofit Management Program으로 설립하여 2000년 Social Enterprise Program으로 명칭을 바꾸고 범위를 넓힘.
  - 경영, 비영리와 공공 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영감을 주고자 함.
  - Social Enterprise Program(SEP)의 범위는 학생들이 비영리·공공 경영, 국제개발,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성으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SEP 역사를 둘로 나누면, 제1기인 1983~2002년에는 커리큘럼 발전과 커리어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제2기인 2003~2008년에는 교육의 질과 경험적 교육 프로그램의 육성에 초점을 둠.
  - 2009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에는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네트워킹을 더욱 개발할 계획.
- 2009년부터 시작하는 5년 전략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 2009년부터 시작하는 5년 전략계획이 성공할 경우 학생동호모임의 수 10배 증가, 사회적 기업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다른 수업의 평균 학생 등록률을 넘으며 모든 인턴십, 각종 사회 벤처 대회와 같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교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임원 MBA와 임원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벅찬 문제가 있음.

- 컬럼비아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 SEP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수진, 대학의 다른 연구소와 프로그램, 학생과 동문회를 연계

□ 컬럼비아의 SEP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통합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활동과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여름 인턴십, 기금모음, 마이크로 파이낸스 투자 기금 활동 외에도 다양한 클럽 활동을 장려해 혁신과 피드백의 원천이 되고 있음.
- 교수진이 수업 개발, 학문과 케이스 연구 등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단과 대학 간의 내부적 소통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도록 독려
- 앞으로 임원 교육과 뉴욕 네트워킹을 계획하고 있으며 리서치와 교수진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가 활성화하도록 계획 중

## 제4세션 사회적 기업 - 세계적 시각과 한국적 시각

### 〈발표자료1〉 부상하는 임팩트 투자 산업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원천

안토니 버그 르바인(록펠러재단 상임이사)

- 모든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농업 종사자 소득 증대, 빈민가 거주자를 위한 주택 건설, 지속 가능한 전력 서비스 제공 등 전 세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선단체나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투자자본이 소요됨.
  
- 다행히도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투자 자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소하지만 급속히 성장 중인 사업이 부상하고 있음.
  - ‘임팩트 투자’ 산업은 사회적 가치와 최소한의 자본수익률(많은 경우 시장수익률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짐.
  - 임팩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미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 대출과 캄보디아의 혁신적인 기업가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인도 의사들이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 농부들이 관개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함.
  - 이 자본의 규모 및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대된다면, 이는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선단체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임팩트 투자자들은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 될 수 있음.
  - 임팩트 투자라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과 사업 모델이 생겨나고 있음.
  - 그러나 임팩트 투자는 현재 신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이 혼동, 중복, 분열 양상을 보이기도 함.

## 〈발표자료2〉 외면되어왔었던 라틴 아메리카 저소득층시장을 위한 비즈니스 해법 제공

엘리자베스 데이비슨(미주개발은행 선임투자심사역)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저소득층 인구의 70%가 사회적 및 경제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 집단은 기본적 필요(주택, 식수, 에너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생존을 비공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더 적은 기본적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빈곤 페널티).
  
- 민간부문을 빈곤해결의 중요한 참가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주개발은행 (IDB)은 2007년 “ 저소득층 대다수를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를 고안함.
  - 저소득층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식 경제 참여를 가능케 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고품질 제품 및 용역을 생산, 제공하는 민간부문 사업 모델을 장려하고, 이의 자금조달을 지원함.
  - 이는 오랫동안 외면되었던 사회 각 부문에서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 승수효과를 가져옴.
  
- “저소득층 대다수를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의 목표는 다양함.
  -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개발 기회에 집중하여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외면된 시장의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략을 새로 세우는 것을 지원
  - 또한, 현재의 재무적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추진
  
- 새로운 비즈니스전략(저소득층시장을 위한 벤처 캐피탈): 주택, 건강, 교육,

기본시설 및 영양문제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인 사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수익성 있는 벤처사업이 될 수도 있음.

○ 이것이 바로 이그니아 펀드(IGNIA FUND)의 개념으로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담보대출 2,500만 달러와 미주개발은행(IDB)의 500만 달러 지분투자로 재원이 마련됨.

○ 이와 같은 금융지원으로 이그니아 펀드는 상업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피라미드 하부(”의 저소득 계층이 보다 나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갈수 있음.

□ 자원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시 도로를 포장하는 새로운 방법): 공공자원을 배가하기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너희의 도로를 개선하라(Mejora tu Calle)” 프로그램의 목표

○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멕시코 시멘트 회사인 세멕스(Cemex)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미주개발은행이 1천만 달러를 부분 보증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개인 소액 대출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위험 분담 모델을 통해, 공공사업 시행기간을 10년에서 70주로 단축 달성함.

## 〈토론자료〉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기업) 활성화의 필요성<sup>2)</sup>

심상달(KDI 선임연구위원)

- 나눔형 사회적 기업(착한기업)의 수익 창출은 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부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역할도 수행함.
  - 시장에서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시장 중심에 연결
  - 소외 계층을 기억나게 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제공
  -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애플, 잭, 홀마크 등과 같이 Red Campaign에 참여하는 영리기업도 광의의 착한기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에 RED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AIDS 등의 질병퇴치기금에 기부함.
  
- 옷, 액세서리 등을 팔아 수익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랑의 줄잇기'는 착한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임.
  - '사랑의 줄잇기'는 추위에 떠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원하는 스위스의 한 복지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에 이동 바자회로 시작
  - 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18개의 매장이 열렸고, 현재 8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
  - 2005년에 문을 연 서빙고의 4호점은 월평균 영업순이익이 2005년 530만원에서 2008년 1000만원으로 급속히 성장함.
  - 이들은 수익금 이외에도 많은 물품들을 국내외에 전달함.
  
- '사랑의 줄잇기'의 성공요인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자신들은 수익 창출에 전념하고, 사회 서비스는 다른 기관을 통해 전달토록 하므로 다른 단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2) 이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제고 방안'의 일부를 보완한 것임

- 목적형 운영으로 참여자의 동기를 부여
- 목적의 설정과 운영에 있어 매장별 자율성이 있음.
- 재활용 매장에서 재고상품 및 자활공동체생산품의 아울렛으로 전환했고, 브랜드 상품 마련과 인테리어의 고급화를 꾸준히 추구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냄.

□ '사랑의 즐잇기'는 나눔 가게에 대한 인식을 현 것 또는 기부 받은 것만 파는 곳에서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으며 착한 목적과 이익의 추구가 상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임.

- 착한 목적은 참여자들의 내면에 잠재된 선한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수익을 확대함.
  - '사랑의 즐잇기 서빙고점'의 지난 44개월간 영업실적은 목적이 착할수록 수익금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착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쇼카'처럼 착한기업가들을 찾아내고, 양성해야 하며, 착한기업가들을 지원해주는 착한기업지원네트워크와 사회적벤처펀드를 조성해야 함.

## 제5세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 〈발표자료1〉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

브루스 어셔(컬럼비아 경영대학 교수)

- 시장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시기에 따라 변화
  - 1960, 70년대에는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개입하지 않아야한다고 보았으며, 1980년대에 진보적인 학자, NGO, 기업가들은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1990년대 교토 의정서에서 증명되었듯이 시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장의 소극적 역할을 주장했던 의견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시장 메커니즘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음.
  - 미국에서 1990년에 생긴 "Title IV of the Clean Air"는 아황산가스 배출 상한선과 배출권 거래 시장을 도입하여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재생가능 포트폴리오 기준(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하여 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였음.
  - 환경문제의 시장 친화적 해결방안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교토 의정서의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으로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4,6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시장시스템은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바 있어
  - 소액금융지원(microfinance)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서 빈민자, 그중에서 여성을 도와주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

임 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와 같이 시장을 통한 방법으로 사회정의를 정립하기도 함.

- 모든 사회문제들이 각각 고유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문제에 적용되어 성공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이 행위자로 하여금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그 비용이 내부화되면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
  - 시장은 목표를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다양한 대안이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춤.
  
- 그러나 시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소액금융지원(microfinance)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 현재의 경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 또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임.
  
- 그럼에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장의 역할은 앞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후 변화 문제의 경우, 오바마 정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상한제와 배출권거래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
  -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장 할당권이 현재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막을 수 있다고 봄.

## 〈발표자료2〉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투자

### 몰리 알렉산더(아큐먼펀드 사업개발실장)

- 아큐먼 펀드(Acumen Fund)는 전 세계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비영리벤처자본펀드임.
  - 아큐먼 펀드는 자선적 자본을 모으며, 인도, 파키스탄,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의 하루 수익이 4달러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 건강, 주택, 그리고 연료와 같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들에 부채와 자본 투자
  - 투자를 통해 시장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인내 자본, 집중적 경영지원, 지식 공유가 각각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음을 보임.
- 세계에는 하루 4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는 40억의 사람들이 있음.
  - 이들은 자본적인 제약 외에도 깨끗한 물, 신뢰할만한 의료서비스, 쾌적한 집과 연료 같은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알맞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6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설비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10억 이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정수되지 않은 물을 음용하고 있음.
  - 매년 대부분 5세 이하인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며, 3억에서 5억 명의 인구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그 중 약 3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이들임.
  - 2030년쯤에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민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16억 이상의 사람들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임.
- 전통적인 기부와 국제적인 원조가 빈곤층의 긴급한 수요를 종종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시장 기반 접근법은 자선적 자금이 점차 소진되어가는 것과 달리 자금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존엄성을 추구하고, 비의존적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함.

□ 아큐먼 펀드는 저소득층에게 건강, 물, 주택, 연료를 감당 가능한 가격에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 해결책을 개발하는 기업가들을 지원

○ 이를 위해 2012년까지는 1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려, 5,000만 이상 사람들의 삶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자신들의 투자가 전 세계 빈곤층의 2%에게밖에 도달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빈곤을 퇴치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업무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

○ 덧붙여, 펠로우즈 프로그램(Fellows Program)을 통해 사회적 기업 분야 및 빈곤층 지원 사업모델에 관한 지식 카탈로그를 추가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자 함.

## 〈토론자료〉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 이종수(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존재 양식임.
  -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주며 '자본시장의 선한 투자'까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므로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
-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재정, 인적자원, 법적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시장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은 미흡하며 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장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위해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함.
  - 첫째,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전달체계의 추세인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의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되어야 함.
  - 둘째,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다양하게 넓혀야 함.
    -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도 그런 의미에서 확보되어야 함.
  - 셋째, 사회적 기업의 지원재원을 다양화·안정화시키기 위해 자본 조달 방식을 시장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사회투자펀드를 도입할 것을 제의
  - 넷째, 기존의 사회적 기업 운영 환경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인적지원 체계, 재정지원체계, 전달체계의 방법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부문의 재원확보가 절실.
  - 단순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운영 정부지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음.

## 제6세션 종합토론

### 〈토론자료〉 한국적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원희룡(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발전의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점도 있음.
  - 자생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노동부 등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기업, 몇 개의 일자리 등 계량화된 통계에 급급하고 있음.
    - 그래서 설립단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못함.
  - 또한 사회서비스용역과 시장용역을 구분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과 민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함.
  - 예비 사회적기업 중 검증된 사회적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
-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통한 모델 정립의 노력이 부족함.
  - 경제위축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담보와 공익적 가치함양을 위하여 모델 정립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
-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분담에 있어 기술개발, 전문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사회적 기업도 서비스와 품질로 승부하려는 자세가 필요
  -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함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예컨대 물품구매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의 접근성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역할이 다이며, 경쟁력 없는 사회적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되어야

- 사회적 기업에 있어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홍보로 전환될 시점임.
  -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 붐 현상도 볼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기업의 활동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대한민국은 사회적 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 3섹터의 규모나 제 3섹터 간 거래 비중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전통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기관은 관 주도로 발전이 지체되거나 국가 의존으로 국가의 복지전달체계에 머물러 자발성과 혁신성이 약함.
    - 영국은 복지 민영화, 미국은 복지재정지출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크게 발달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3섹터의 파이를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
  
- 민간 대기업의 사회공헌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이 아직 취약
  - 현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이 긴요하고, 자금동원력이 큰 대형 NGO, 복지재단 등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확충이 긴요함.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한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적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함.
  - 나눔과 기부 속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되어야 함 .
    - 사회적 기업은 나눔과 기부를 토양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일조함.
  - 다보스 포럼에서 유누스는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한다니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워렌 버핏이 이윤을 남겨 사회에 돌려주면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 사업과정에서 사회에 돌려주느냐, 이윤을 모아놓은 다음에 돌려주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회적 기업은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목적과 보람이 있다”라고 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야할 시점임.